

## “80년 5월, 계엄군에 맞선 ‘오월의 마을’ 기억해주세요”

광주 동구 소태동에 자리한 태봉마을은 1980년 5월과 관련된 뼈아픈 역사를 안고 있다. 이곳 주민들은 5·18 당시 계엄군의 무지막지한 강경 진압에 분개해 지역방위군을 편성·투쟁했다. 경찰은 이를 빌미로 항쟁 직후 마을에 상주하며 주민들을 지속적으로 탄압했고, 일부는 계엄당국에 연행돼 온갖 고문을 받기도 했다. 군·경의 횡포에 짓밟힌 주민들은 오랜 기간 트라우마에 시달려야 했다. 고통을 견디지 못한 이들은 결국 마을을 떠났고 현재는 당시를 기억하는 주민이 아무도 남지 않았다. 태봉마을의 항쟁과 수난은 지난 1980년 이후 44년 동안 정확한 진상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 구술로만 전해져 올 체계적 보존과 관리·보상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5·18때 계엄군의 버스에 대한 총격으로 17명이 사망한 지원동 주남마을이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진상규명 조사, 다양한 사업 등이 진행된 것과는 대비된다. 이에 본보는 잊혀진 태봉마을의 오월 역사를 조망·기록하고, 마을의 역사적 의의와 가치를 알리기 위한 후속 과제를 시리즈로 게재한다.

편집자주

### 5·18 44주년 - 태봉마을의 비극

#### <1> 들어가며

‘최초’ 소태·지원동 지역방위군 결성 총 84명 주요길목 경계·총격전 벌여 항쟁 후 연행돼 고문 등 지속 탄압 “주민 모두 피해자·투사… 관심을”

‘왕실의 태가 묻힌 곳’인 태봉(胎封)은 조용하고 아름다운 마을이었다. 약 100가구의 주민들은 무등산 자락을 등에 업고 큰 규모의 부락을 이뤘다. 그러나 1980년 5월 공수부대가 광주에 들이닥치면서 평온하던 마을에 비극이 찾아왔다. 같은 달 21일 전남도청 앞에서 자행된 계엄군의 집단 발포로 많은 이들이 희생되자 광주 시민들은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무장을



시작했다. 차량에 탑승한 시민들은 나주·화순 등 인근 지역으로 빠져나가 광주 상황을 전파하고 파출소 등지에서 무기를



1980년 5월과 관련된 뼈아픈 역사를 안고 있는 광주 동구 소태동 태봉마을. 이곳 주민들은 5·18 당시 계엄군의 강경 진압에 분개해 지역방위군을 편성해 맞서 싸웠다. 사진은 마을전경과 입구에 세워진 표지판(작은 사진).

김양배 기자

획득했다.

광주에서 시민군이 조직되자 계엄군은 화순 능주와 동구 주남마을로 후퇴했다. 시민들은 퇴각한 계엄군이 다시 시내로 진입할 것을 대비,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방위군을 결성했다.

가장 먼저 시민군이 꾸려진 곳은 태봉마을 ‘배고픈 다리(홍림교)’였다. 화순 방향에서 돌아온 마을 주민·시민들이 인근에 있던 예비군 중대와 규합해 ‘소태·지원동 시민군’을 결성한 것. 예비군 체제를 활용했던 이들은 각 조당 7명씩 12조(총

84명)를 편성해 중심사 방향의 광주 길목을 차단했다. 당시 광주의 ‘시민지역방위군’은 지원동을 비롯해 △백운동 △화정동 △서방삼거리 △산수동 등지에 결성됐다.

마을 주민과 예비군은 구급차와 각목으로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전남도청 시민군 지휘부에서 하달받은 암구호를 쓰는 등 체계적이고 설 틈 없는 경계를 펼쳤다. 당시 광주 중심가에서 퇴각한 7·11공수여단이 조선대학교 뒷산을 타고 태봉산으로 넘어와 진지를 구축한 탓에 한순간도 긴

장을 늦출 수 없었다. 이들은 22일 자정 조선대 뒤 깃대봉에서 배고픈다리 쪽으로 내려오던 계엄군과 30여 분간 총격전을 벌여 퇴각시키기도 했다. 이튿날 오전에는 총격전 이후 낙오된 계엄군을 생포, 전남도청으로 이송했다. 전투에 참여하지 않은 태봉마을 주민들은 김밥과 주먹밥·박카스·담배 등을 마련해 함께했다. 지역방위군은 5월23일 시민수습대책위원회의 총기회수 결정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체됐다.

2면에 계속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

### ‘어린이날 연휴’ 광주·전남 곳곳서 비 피해

도로 침수·교통사고 잇따라 보성 267.5mm 최고 강수량

어린이날 연휴 광주·전남에 최고 100mm의 비가 쏟아지면서 토사가 유출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6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자정부터 이날까지 주요지점 누적 강수량은 보성 267.5mm, 광양읍 265.0mm, 포두(고흥) 231mm, 순천 226mm, 여수 188.5mm다. 광주에서도 무등산 86mm, 광산구 77mm, 북구 62.3mm 등이 기록됐다.

보성·광양·순천에는 호우경보가, 구례·고흥·여수·장흥·완도 등 5개 시·군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됐다.

많은 비가 내리면서 광주·전남에선 피해 신고가 이어졌다.

이날 오후 1시께 광산구 우산동 국제미소래1차아파트 앞 도로에서 현대 캐스퍼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전봇대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출동한 광산소방·경

찰은 사고 현장을 수습, 경상을 입은 운전자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광산구는 주변 도로에 빗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긴급 배수로 정비 등 사후조치했다.

전남에서도 사고가 잇따랐다. 이날 오후 1시58분께 광양시 광양읍 한 도로에서 굴다리 아래를 지나던 차량이 불어난 물에 고립돼 타고 있던 일가족 4명이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또 오후 3시

께 순천시 서면 한 도로에서도 굴다리 침수로 차량에 갇힌 운전자가 자력으로 탈출하기도 했다.

광주기상청 관계자는 “많은 비가 내리면서 하수도와 우수관, 배수구가 이물질에 의해 막힐 수 있으니 대비가 필요하다”며 “돌풍과 천둥·번개로 인한 시설물 관리에도 주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2면 정성아 기자

모두의 오월, 민주를 그리다!

## 목포 오월길 걷기

5·18민주화운동 44주년을 맞아 지역의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모두의 오월, 민주를 그리다!’를 주제로 한 민주문화제의 일환으로 목포 오월길 걷기를 개최합니다. 5·18민주화운동의 의의와 가치를 미래세대와 함께 공유하고 도새끼기 위한 목포 오월길 걷기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행 사** ‘모두의 오월, 민주를 그리다’-목포 오월길 걷기  
**일 시** 2024년 5월 7일(화) 10:00-12:00  
**장 소** 목포지역 5·18사적지 일대  
**참가자** 목포여자중학교 학생 및 일반 참여자

**주최/주관** 전남서부보훈지청